

선교회지 MAR 2010 '여름' 호 통권 4호

Universal Care

간증문

몽골 에르덴 호의 전도사

Interview

러시아 로스톱 신학교
김우섭 선교사

My Vision 홍성훈 목사
'Paradigm Shift of Mission'

Theme 이스라엘

2010.03.16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의료 및 교육, 치양 등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하여 결성된 전문인 선교회입니다

발행인 / 정진호

편집/ 편집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2
트리플타워 A동 303호

Tel 032) 329-2875

Fax 032) 329-2879

www.cyworld.com/universalcare

발행일 : 2010.07.06

표지설명



몽골 울란바토르 자이승 전망대에서 몽골땅에 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Contents

01 *Prologue* 마라나타/정진호

02 *Column* 유니버설 케어 !

거룩한 시너지를 재생산하라

/ 박인용 목사

04 선교논단 "마라나타 신앙과 선교"

/ 김우섭 선교사

07 My Vision

멈출 수 없는 발걸음 /최성필 전도사

특집

09 2010 Mongol Outreach

간증문 /천윤미, 이은숙

몽골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강상준 목사

2010 몽골 아웃리치 /이지혜

33 탐방기/디아스포라신학교

39 선교지에서 I, II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를 꿈꾸며

/려시아 김아영 사모

-남아공에서 / 배성호선교사

45 선교사 기도제목

Prologue

마라나타

정진호

월드와이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U치과 원장



2006년 Universal Care의 모체인 연세U치과팀이 부천 의성교회와 연합하여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당시 의성교회 성도들의 현금으로 몽골 전통 집, 게르 모양의 아름다운 벽돌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 '보르항니 지구르' 교회입니다. 2007년 여름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1년 만에 12명의 세례 교인을 길러 내고, 세례식을 베푸는 감동적인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주의 12제자가 세워 지듯이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확인 하는 작업은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2009년 다시 몽골 땅을 밟았지만, 팀의 일정상 보르항니 지구르 교회를 방문하여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한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차가 없는 그들은 50km의 거리를 몇시간씩 걸어 가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수년, 그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땀방울을 받으셨습니다.

2010년, 교회개척을 목표로 시작된 몽골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아니라 이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전적인 헌신 앞에 우리를 도구 삼으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열매, 폭발적인 복음에 대한 반응,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며, 보르항니 지구르 몽골 성도들의 전적인 헌신과 우리의 작은 순종의 아름다운 협력의 하모니였음을 고백합니다.

Universal Care는 전세계 열방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그 끝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의 줄거리로 연결 되어지는 아름다운 서사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Universal Care 치과팀은 이번 몽골 땅에서 고형원 선교사님의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특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그렇습니다. 그 곡의 노래말 처럼 우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땅끝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Column

유니버설 케어 ! 거룩한 시너지를 재생산하라

박인용 목사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KOSTA 부흥강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유니버설 케어의 1 주년을 축하합니다.

유니버설 케어의 복된 성공을 바랍니다.

그 성공을 위해선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치과 치료술을 기동성있게 유기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평소의 전문 의술과 기능 연마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인술이요, 치료터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가장 적절한 치유와 터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팀웍입니다. 치유의사 혼자가 이 일을 감당 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압니다. 간호사, 기공사, 봉사자들의 유기적 팀웍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현신마인드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말씀의 도전과 성령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유니버설 케어는 수의 치과

병원으로서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선교 공동체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병원을 일으킬 것이고 쓰실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내부의 균열과 분열의 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공동체가 될 때 가능합니다. 서로 섬기시기를 결정하십시오. 유니버설 케어는 이미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섬김의 띠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킬 파워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여름 겨울 아웃리치를 가도 하나님은 배나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비로 헌신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채우실 것입니다. 동일한 비전 앞에 순복하는 아름다운 현신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 모델이야 말로 진정한 세상속의 교회로서 그 기능을 다해갈 것입니다.

셋째, 그렇게 하기 위해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훈련에는 기능적인 훈련, 기동성 있게 대처하는 훈련,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선교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우리 자신의 드림의 훈련입니다. 비움의 훈련입니다. 매달 예배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께 공급받기 위한 최소한의 소스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의 즐거움,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묵상을 통해서 서로의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넷째,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기능, 기술, 노하우 등은 섬기기 위한 툴(tool)로서 주신 것임을 기억할 때 이 자세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돈벌기를 추구하면 돈은 나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그는 권력의 견제를 받습니다. 높아지기를 추구하면 그는 낮은 자리로 쫓겨납니다. 이것이 정직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비움을 결정하면 채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헌신을 작정하면 은혜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집니다. 이 역설의 원리 앞에 많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주저합니다. 잊을 것만 같고, 순해 볼 것만 같은 분명하게 보이는(?) 신기루 앞에 속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것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섯째, 교회와의 아름다운 연합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장점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결합되어야 거룩한 시너지가 납니다. 지금까지 선교단체의 치명적(?) 약점은 교회와의 거리를 너무 두거나, 심지어 교회를 무시하면서 그 사역적 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의 사역은 아름다운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이루는 전도부흥의 아름다움에 취해 계십니다. "참 내 아들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참 이쁘구나!" 하는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미 몽골에 두 차례의 연합선교를 통해서 그 시너지를 경험했습니다. 실질적인 치료의 니즈(needs)를 채우고, 모여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의 회복과 치유로 연결 시키는 작업(?)은 고전적이지만 매우 이상적입니다.

거기에 연합집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선교입니다. 앞으로 유니버셜 케어는 전문성과 헌신성으로 무장하고, 교회는 영성과 전도라는 툴로 연합함으로 하나님나라는 끊임없이 확장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역을 기뻐하는 박인용목사

선교논단

마라나타 신앙과 선교

김우섭 목사

러시아 로스토프 나 도누 선교사



누가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연다(눅 2:25). 시므온이 기대한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야의 오심을 두고 한 말이다. 이 구절은 단지 시므온 한 개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기록되었는지를 축약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즉 구약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을 위로할 메시야 대망이 목표였으며, 메시야의 오시는 그 때를 종말(말세)이라고 하였다(히 1:2).

이처럼 예수님의 이 땅위에 오심은 구약의 종말론의 가장 중심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하심으로 죄인들의 위로가 되는 구속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적 죽으심의 적용자로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요엘이 예언한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외칠 수 있게 되었다(행 2:16,17). 실은 구약 성경의 종말

론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섞여 나타난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종말론은 구약 성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다. 이처럼 구약, 신약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위에 오시는 종말의 때를 예고함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분명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신자가 맞이하고 있는 종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란 신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며, '아직'은 신자들이 향유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즉 신자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구속적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미 종말에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은 이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라'(눅 17:21)고 하셨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최종의 상태인 것이다. 그 최종의 상태는 우리의 영과 육, 전인이 구원 받는 것이다.

현재 신자들은 영혼의 구원, 즉 중생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육체는 아직 아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많은 연약 즉 질병, 죄의 유혹, 피곤함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 구원인 신자의 육체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주어진다. 이처럼 육신의 죽음 이후 누리게 되는 중간상태가 신자의 완전한 구원이 아니며, 신자들의 최후의 목표 또한 아니다. 아직 신자들은 무언가를 더 기다려야 하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아직'의 상태이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영원히 살게 될 새 땅과 새 하늘,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신자들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받게 되는 축복이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최후 심판과 최종적 구원의 축복을 과연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로 많은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 왜 그럴까?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신자들이 세상의 편안함에 빠져버리는 세속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자들이 이 땅에서 별 어려움 없이 육신적인 편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천국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올시오이다'이다. 초대 교회 시대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다. 초대교회는 오늘을 사는 신자들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상황 가운데 처했었다. 그 시대는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과 삶의 고난이라는 댓가를 치뤄야 했던 흡박의 시대였다. 이런 흡박은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더욱

강하게 불들게 하였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참된 신앙적 삶의 부족 때문이다. 화란의 구약학 교수인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한다. '구약 시대의 신자들은 오늘과 다르지 않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할 때는 종말론 사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만이 자신들의 삶의 기반인 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공의를 충족시키실 분으로,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굳게 지키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그들 안에는 꼭 종말론이 일어났다'

초대 교회 시대 때나 오늘을 비교해 볼 때, 선과 악의 차이는 다를 바가 없다. 얼마나 많은 악이 여전히 신자들 안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가! 그 악과 믿음으로 싸우게 될 때, 그 악을 심판할 재림 예수님을 기대하게 된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이다. 타협이 없는 순전한 신앙은 분명 악과 싸우게 되며, 그 싸움은 악을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된다. 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은 하박국처럼,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보여주는 순교자들의 간구처럼 '주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심이 어느 때입니까!'라고 고백하며 주의 재림을 기대하게 된다. 흡박의 시대 속에서 타협이 없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였던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였던가! 손목사님은 '주님 고대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신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미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 천년을 하루 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시간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천지만물을 들어 증거한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탄식하며 고대 한다. 그리고 그 해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의 구속과 함께 완성되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는 신자들의 몸의 구속을 탄식하며 고대한다는 것이다(롬 8:26). 이 얼마나 놀라고 놀랄 진술인가! 주님의 재림은 신자들만이 사모하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신자들과 함께 고대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신자는 자든지, 깨든지 간절히 사모할 바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다.

우리는 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반드시 불들고 가야 할 것이 있다. 역사의 진정한 의미다. 역사의 진정한 의미는 구속사이다. 역사를 해석할 때 구속을 빼내 버린다면 역사의 의미는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님을 통한 죄인 구원이다. 그리고 죄인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 그 역사적 사명은 바로 선교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마 28:19,20).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재림하시지 않고 계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인데, 그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멀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벧후 3:9). 이런 구절을 볼 때 선교적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이 된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관심은 마라나타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여! 선교가 나의 선택항목이 되지 않게 합시다. 신앙과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게 합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마라나타 신앙을 더욱 굳게 합시다.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을 그만 두고 하늘에 재물을 쌓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My Vision

멈출 수 없는 발걸음

최성필 전도사

부천예음교회

Universal Care

인터넷사역 담당자



성경 인물 중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다. 그에게 붙여진 "꿈꾸는 자"라는 별명처럼 그의 삶은 꿈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 어린 시절 그가 가진 꿈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시작된 어려움은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고 상인들에게 팔려가 종으로서,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로서 그는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그가 꾸었던 꿈을 이룰 수 없는 삶이었다. 그렇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요셉이 처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고 기다리므로 그의 꿈은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실하면서도 진실 된 삶을 산 요셉을 보면서 나의 롤모델로 삼고자 하였다.

요셉의 별명인 "꿈꾸는 자"는 내가 웹에서 사용하는 있는 닉네임이다. 요셉처럼 꿈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꿈이 없던 나는 요셉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에겐 꿈이 있는지, 삶의

목표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고민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도하게 되었다. 비전을 찾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게 되었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였다. 이것이 선교의 첫 발걸음이 되었다. 이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를 접하게 되었다. 인터콥에서 실시하는 "비전스쿨"훈련을 통해 선교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선교사의 삶과 사역 그리고 선교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배우게 되었다. 훈련을 마친 후에 필드훈련으로 터키로 3 주간 단기선교를 통해서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보다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다. 필드훈련 중에 현지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루 밤을 보낸 적이 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불과 15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는 흘리는 슬픈 눈물보다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같은 해에 교회에서 청년부 주최로 필리핀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인터콥을 통해 배웠던 훈련들을 적용시키며 선교를 준비하였지만 선교의 전문성이 없는 교회를 통한 선교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었다. 교회는 선교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대한 전략도 없고 선교사에 대한 폭 넓은 이해도 부족했으며 어떻게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빈약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의 발걸음은 선교학을 공부하게 하였고 다시 선교단체로 옮겨지게 되었다. GP 선교회에서 간사를 섬기면서 선교단체와 선교사 그리고 파송교회간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역할들이 무엇인지, 이 역할 속에서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다. GP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교제함으로 선교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다. 시간과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선교지를 돌아보면 선교지의 상황과 선교사의 필요를 듣게 되어 선교사를 돋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선교의 발걸음을 통해 나는 "3M"이라는 선교의 비전을 세우게

되었다. **선교 전략가** (Mission Strategist), **선교 동원가** (Mission Mobilizer), **선교 분배가** (Mission Divider)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비전은 선교자를 돌아보면 선교사님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함께 선교지의 전략을 세우는 선교 전략가이자, 이러한 선교 전략에 의해 선교지에 필요한 선교 현신자들을 적절하고도 꼭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분배하는 선교 분배가이자,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 할 수 있는 선교 관심자들을 발굴하여 선교 현신자들로서 섬기게 하는 선교 동원가가 나의 꿈이자 나의 비전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선교의 발걸음은 이제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이 되었다. 나의 발걸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기도제목

이슬람 문화권이자 불어권 지역인 북부 아프리카 지역인 차드로 2주간 단기선교 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지 방문을 통해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역과 현지의 문화와 언어 등 선교지에 대한 이해와 향후 선교사역을 개발하고자 갑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정: 7월 26일(월)~8월 7일(토)

특집

2010 Mongol Outreach



Universal Care 치과팀은 2010 년 5 월 1 일부터 5 일까지 월드와이드 교회와 동역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겨라!!’라는 주제로 몽골 아웃리치에 참가 하였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특별히 쇼브링 파브릭스 지역에 교회 개척을 목표로 이루어 졌으며, 한방 및 이침, 교회학교, 전도팀 등과 함께 동역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2010 Mongol Outreach I

몽골을 다녀와서..

천윤미

주안장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 U 치과 치위생사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몽골땅을 향해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몽골을 떠나기 전 준비하는 동안, 기도로서 그리고 그저 한없이 감사함으로 행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너무나 어리석게도 난 그때의 상황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했었다,
바보처럼 작년에 몽골땅을 처음 밟았을 때 느꼈던 말할 수 없는 그 벽찬 감동과 감사함을 잊은 것 처럼 말이다.

몽골에 도착한 첫날은 내게는 너무너무 힘든 하루였다. 출발하는 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채로 하루를 보내서 그런지 예배드리는 시간에 집중도 할 수 없었고. 내 마음 또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함이 아닌 지친 마음으로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내게 대답대신 잠을 허락하여 주셨다. 다음 날 아침... 역시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다.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후 사역을 시작했다. 사역을 하다보면 조금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다. 그런데 사역을 마친 후 예배를 드릴 때면 신기하게도 그 피곤은 다 사라지고 너무나 놀라운 힘이 생겨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이런 게 바로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건가보다..^^ 예배를 드릴 때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더욱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말하지 않아도.. 찬양으로 기도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몽골에서 예배를 드리다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감사함이 있다. 바로 내가 언제든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 말이다. 하지만 난 그러한 감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아닌 불평함으로 살아 갈 때가 너무 많았다. 그런 내 모습들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 부끄러운 마음 뿐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 몽골인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히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듯이 그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며 실수투성이 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며 날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날 이 복된 자리에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과 연세 U 치과를 통하여 또 원장님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너무 감사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내가 연세 U 치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매년 매년 꼭 다시 가겠다고 말이다. 몽골 땅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다. 몽골 땅... 그 땅이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거룩한 땅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일들이 행해지는 나라가 되길 기도한다.

2010 Mongol Outreach II

몽골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이은숙

초대방주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 U 치과 치위생사



몽골에 가기 전 제 신앙생활은 간신히 주일성수만 하는 정도의 매너리즘에 빠져 감사가 부족한 생활이었습니다. 준비과정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라서도 과연 이런 나의 모습이 변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아웃리치를 통해 무엇보다도 온유함과 순종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불끈불끈 올라오는 혈기가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그간 막연하게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만 품었던 저에게 첫번째 찾아오는 기회였습니다. 유니버설 케어 연세 U 치과의 직원의 일원으로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예배를 드린 후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빈곤하다는 쇼보릭 파브릭쪽의 보건소와 다르 항의 한 초등학교에서 치과 진료 사역에

동참 하였습니다. 하루에 서른 명에서 마흔명 정도의 환자를 보는 정도였지만 한 분 한분 맞이하면서 예수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맘으로 진료에 임했고 집회에 참석해서 진료할 때 보았던 분이 앉아 계실라치면 반가워 나도 모르게 인사를 꾸벅 하였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 예배 드리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앉을 자리조차 없이 네시간 다섯시간이 넘는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들 지루해하기는 커녕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첫날은 두어시간 예배를 드리면 끝나는 줄로만 알고 있다가 길어지는 집회 시간에 놀라서 실만한 자리만 찾아다녔는데 둘째날은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럽고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미쳤을 때 그림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밖에 서계시고 안에 제가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날 부르고 계신데 손잡이가 안에만 있어 내가 열기 전엔 열리지 않는 그림!

또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의 틀에 주님을 가둬두고 성령님이 찾아오지 않으심을 한탄했습니다, 주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마옵소서"주님을 인정하고 딱딱해진 신앙생

활을 알면서도 그런 모습을 용납해버린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워져 반석위에 서가는 보르항니 지구르 교회와 이번에 쇼보릭 파브릭 지역과 다르항에 세워진 교회가 몽골에 떨어진 한알의 밀알이 되어 삼십배 육십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성장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또 다시 침체기에 빠질라치면 몽골을 생각하며 도전을 받기로 다짐했습니다 나눠준 빵이나 식사를 혼자 먹지 않고 다른 식구들과 나눠먹기 위해 싸가지고 가던 따뜻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영접하던 선한 모습이 떠올라 모이기에 힘쓰던 그날이 생각날 테니까 말입니다



2010 Mongol Outreach III

몽골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강상준 목사

월드와이드교회 부목사

2010 월드와이드
몽골 아웃리치 선교단장



아시아에서 6 번째로 넓지만 인구는 약 290 만명, 인구의 2%가 기독교인인 나라, 몽골..

이 몽골과 나는 인연을 맺었다.
그 인연은 우연히 찾아왔지만 지금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임을 느낀다.
2009 년 봄, 내가 섬기는 월드와이드교회 정진호 형제님이 운영하는 연세 u 치과 직원예배에 박인용목사님을 모시고 참석하게 되었다. 예배 후 점심을 나누며 우린 줄곧 선교에 대한 얘기로 이야기 꽂을 피웠다. 그러던 중 몽골 의료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정진호 형제님이 간증하셨다. 이 간증을 듣던 박인용 목사님께서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번에 의료선교 중심의 몽골아웃리치를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몽골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2009 년 몽골 아웃리치 백서 끝자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씨드 머니를 통해 몽골에 제 3 호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갖게 하셨다. 몽골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다시 몽골행 비행기에 몸을 싣겠다는 생각은 나 혼자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백서의 끝자락에 담긴 기도문과 같은 기록처럼 2010 년 봄 우리는 몽골로 향했다.

이번에 가는 몽골 아웃리치는 교회 개척을 위한 아웃리치이다. 교회 개척... 이 단어를 생각하니 마치 사도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의 감흥이 조금 전해지는 듯 했다.

이런 설렘과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연착되어 다음 날 새벽 3 시에 출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상관없고,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도 상관없으나 우리를 기다리는 몽골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에 차질이 생길까 봐 순간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곧 우리 팀원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느꼈다.

'이것도 나의 계획이니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기면 된다'

이 확신 속에 우리는 수동적일 수 없었다. 나는 '우리는 군대이며 우리의 아웃리치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사역팀별로 교회 주변 땅밟기를 진행하였다. 어느 지체는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술집, 노래방 등이 있는 줄 몰랐다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땅밟기를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심을 모든 팀원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역과 몽골을 향한 중보를 더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으로 몽골로 향하였다.

몽골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참으로 놀라움 그 자체였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지역은 쇼보릭 파프릭이란 곳인데 교회 건축예정지는

마을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넓은 마당을 가진 집이었다. 그 집은 현재 쇼보릭 파프릭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집이라고 하였다. 그 넓은 마당에는 천막이 쳐있었다. 우리는 그 지역 보건소 건물을 빌려 의료/급출 사역을 진행하는 한편 오전/오후 주일학교 아이들을 초청해서 천막이 쳐진 이 곳에서 예배하고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기도회를 마치고 북, 장구, 징, 팽과리를 치며 온 동네를 돌며 전도하였다. 인기척이 없었다. 이 넓은 마을에 이런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도 나와 보는 이가 없었다. 간혹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한걸음에 달려가 그분에 전도하고 저녁집회에 초청을 했다. 요란한 소리에 담장너머로 잠깐 보다가 낯선 이방인인 우리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강한 바람과 함께 먹구름이 끼더니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예배드릴 장소인 천막교회로 들어갔다. 여전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더 추워지기 시작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이 추위가 사라지고 비바람이 멈추며 먹구름이 물러가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다시 거리로 나섰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늘을 보니 어느새 먹구름이 물러가고 뜨거운 햇님이 방긋 웃고 있었다. 집회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씨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 이 개입하심은 출발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전반부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한국의 부산에 해당하는 '다르항'에 있는 아가 폐교회 지원사역 나갔다. 그 지역의 중심에 학교가 있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였다.

우리는 이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 성경학교를 기획했다. 백 여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재밌는 놀이로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찬양과 울동을 함께 하며 하나님을 전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콜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 모든 아이들이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전에 난 '요단강이 갈라질 때 어떤 기분일까?' 생각한 적이 있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인간은 유한함을 인정한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순간 다르항 지역에 서열 3 위의 공무원인 당서기관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내 옆에 섰다. 그러더니 아이들에게 무어 라 꾸중하는 듯한 분위기로 한참 말을 하더니 아이들을 모두 운동장으로 내



몰아 버렸다. 참 난감했다. 이제 아이들에게 교회오라는 말과 준비한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가버린 것이다. 난 어리둥절해서 통역하는 자매에게 그 분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물어보았다.

당서기관이 한 말은 '이 분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고 함께 오신 분들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의료/공헌/섬김 사역을 하러 오신 분들이시다. 몽골과 너희들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다. 그러니 이 분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어라.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운동장에 가서 휴지 열 개 주워서 다시 와라. 출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다. 이 말은 듣고 있는데 순간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의 나귀가 생각이 났다. 하나님은

급하시면 나귀도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 당서기관은 중년여성이다. 몽골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거나 전해서는 안된다. 이 분은 우리가 집회 장소로 사용할 학교 강당을 허가해 준 분이다. 그리고 상부로부터 우리를 감시하라는 명을 받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감시(?) 하셨다. 그 감시의 내용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음의 전령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후에 이 분에게 저녁집회 때 격려사를 부탁했다. 약간 망설이다가 격려사만 하고 가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2 시간 30 분이 넘는 집회 내내 함께 찬양하고 메시지를 듣고 콜링 시간에는 영접도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아이 중에 손가락 부러진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팀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 분이 손가락 부러진 아이를 치료해주겠다고 자원하며 나섰다. 그리고 교회 지을 땅과 건물도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해산의 수고로 이들을 섬겼다. 이런 순종에 하나님은 그 분의 스케일로 몽골에 새 역사를 쓰셨고 그 쓰심에 현장에 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
철없고 많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잠자던 영성을 깨우시고 다시금 지성소의 중보자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당연시하던 나의 시선을 바꾸신 하나님!
지금 쇼보릭 파프릭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떠나고 첫 주일에는 30 여명의 어른들과 40 여명의 아이들이 모여 예배 했다고 한다. 한 주일에 어른 23 명과 어린이 34 명, 총 57 명의 새 가족이 온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소망한다.
“주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그 지역과 몽골에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2010 Mongol Outreach IV

2010 몽골 아웃리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겨라!!

일시: 2010.5.1(토)-5.5(수)

글 /이지혜

월드와이드교회

아웃리치팀 서기



출발(5 월 1 일 토요일)

토요일 오후 4 시 8 분. 모든 팀원이 공항에 집결하였다. 출발층 E 카운터는 몽골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북적거렸다. 몽골의 기상악화로 몽골에 비행기가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도 준비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는 교회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단장이신 강상준 목사님께서 “우리는 군대이며 우리의 아웃리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다. 그렇다. 몽골에 갔든 못 갔든 우리의 아웃리치, 우리의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6 시 4 분, 교회로 돌아온 우리는 간단한 저녁을 먹고 삼산상업지구를 땅 밟기를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노래방과, 마사지, 술집이 있었다. 알콜중독을 치료하는



병동이 있는 글로리 병원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저 멀리 몽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에도 더 많은 기도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곳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기도하였다.

우리는 교회로 돌아와 아웃리치에 임하는 각자의 마음과 상황을 나누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수만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다. 응답을 들은 사람도 못들은 사람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 한 사람도 허투루 부르지 않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사했다.

깊었던 나눔이 10 시가 되어서야 끝나고 출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과팀은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다(이 장비가 현지에서 그렇게 요긴하게 쓰일 거라는 것을 그 때 우리는 정녕 몰랐다.). 공항에서도 우리의 나눔은 끝이 없었다. 비행기가 출발하는 새벽 3 시까지 나눔은 점점 깊어만 갔다. 보통 아웃리치는 처음에는 서먹하다. 다양한 다락방, 다양한 공동체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청년과 성인이 만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아웃리치는 시작부터 나눔이 있고, 친밀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다. 출발을 늦추신 주님께서는 또 이런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었나보다!

도착(5 월 2 일 주일)

이른 아침 징기즈칸 공항에 도착 한 우리는 신속하게 개인 짐과 교회 짐을 섞어서 통관을 향해 나아갔다. 통관직원들은 개인 짐표와 가방의 짐표를 세밀하게 확인하였다. 그러더니 교회 학교 짐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리키며 뜯으라했다. 차분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박스를 뜯었다. 주님이 지혜를 달라고,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순간 간절히 기도했다. “오케이 오케이”. 몇 명의 짐이 뜯겨짐을 당했지만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우리 팀 전원의 짐은 몽골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 감사 또 감사!!



비포장도로 같은 승차감을 선사하는 포장도로를 달려 7 시 10 분, 숙소인 나문 호텔에 도착하였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재빨리 씻었다. 식사를 마치고 8 시 30 분 호텔을 출발하여 8 시 55 분에 <뭉힝오능> 교회에 도착해 주일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나고 두 팀으로 나뉘 의료팀은 <보르하닝지구릉 교회>로 이동, 전도 팀은 뭉힝오능 땅 밟기를 했다.

11 시 뭉힝오능 주일예배가 시작됐다. 예배당이 꽉 차고 아래층에서는 어린 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특송을 했다. 가장 귀한 주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을 드린다고, 주님이 가장 귀하시다는 고백의 몽골어 찬양. 우리 발음은 안 좋고 별로 잘 하지도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나와 울려 퍼졌다. 강상준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2 장 1 절-5 절 말씀으로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권세가 있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선포하셨다. 오직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간다. 오직 십자가.

설교가 끝나고 그들은 전도를 나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 이웃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의 기도는 뜨겁고 강했다. 또 우리는 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예배당에 있던 200 여명 전체가 손을 잡았다. 잡은 손으로 뜨거운 마음이 전해왔다.

새 신자가 8 명이나 있었다. 우리도 함께 손을 뻗어 마음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매주 10 명 정도의 새 신자들이 나온다고 한다. 복음화율이 1%정도 뿐이 안 되는 이 땅에 이러한 부흥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했다.

2 시 30 분, 드디어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역할 보건소 앞에 모여 있었다. 각자의 의료 팀이 방을 셋팅하고 접수팀은 번호표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치과, 이침, 한방, 뜸, 네일아트 부스가 만들어졌고 사물 놀이팀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구름같이 사람이 몰려든다.' 라는 말이 있다. 정말로 그랬다. 네일아트 부스 주위를 에워싼 사람들, 현관에 몰려들어 번호표가 이미 동났는데도 떠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소문을 듣고 더욱 몰려오는 사람들로 매우 붐볐다. (이침 40 명, 한방 53 명 치과 22 명, 계 115 명 네일아트 약 40 명.)





저녁 6 시.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정된 시간에 철수하기란 쉽지 않았다. 각 팀이 시간을 넘겨서까지 열심히 사역을 이어갔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내일! маргааш”하고 외쳤다.

쇼보릭파보릭 교회건축예정지인 곳에는 천막이 쳐져있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뒤쪽, 그리고 옆쪽에서 중보했다. 날은 점점 추워졌다. 모래바람에 눈과 입이 벼석거렸다. 그래도 함께 예배하였다. 이곳에서 내일은 어린이 학교 사역을 하게 된다. 내일 또 이 아이들을 볼 수 있다니 기쁘고, 두근거렸다. 몇 시간이나 지속되는 예배에도 사람들을 자리를 뜨지 않고 말씀에 집중했다. 너무 신기하고 도전되었다.



5 월 3 일 월요일

우리가 오늘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다. 구원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안아주어야 한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는 구원, 복음,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시 어제와 같은 보건소에 자리를 잡은 우리는 어제 보다 더 민첩했다. 사역팀과 어린이 학교팀으로 나누어 사역팀은 각자 셋팅을 하고 어린이 학교팀은 어제 예배드린 <쇼보릭 파보릭 교회>에서 어린이 학교사역을 시작했다.

어제의 사역으로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은 친구를, 부모를 데리고 왔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각 팀에서는 지난 이틀간의 강행군으로 지치고 피곤했을 텐데도 시간을 넘겨가며 최선을 다해 한 사람이라도 더 진료하려고 노력했다.

그 사이에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진팀이 사진을 찍어 주었다. 즉석에서 사진을 뽑아주자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다. 카메라 파인더 안에서 몽골사람들의 순수함, 기개, 장난스러움, 기쁨이 선명하게 비쳤다.



어린이 학교팀에서는 성경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강상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아이들 끼리 씨름도 하고, 준비해간 풍선놀이도 했다.

어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무언가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은 한 어르신이 목사님과 우리 팀을 자신의 가족들이 사는 게르로 초대하셨다. 게르에는 귀신들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꼬부라지고 눈이 돌아간 아이였다. 의사들은 병명을 모른다고 하였다고 한다. 게르 안에는 조상신과 온갖 지방신을 섬기는 우상단지들, 라마교의 그림들이 가득했다. 눈에 보기에는 매우 깨끗하게 정돈 된 게르 안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 영적으로는 매우 탁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였다. 이 가정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기를, 이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저녁이 다 되도록 교회 학교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아이들은 모래먼지 속에서 까르르 잘도 뛰어놀았다. 오후 6 시 보건소를 정리하고 사역팀이 합류하였다. 통역을 도운 청년들과 우리 팀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기차놀이를 했다. 아이들이 낮 시간 동안 그린 구원에 대한 그림이 마당을 둘러싼 벽에 붙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보혈, 노란색 십자가,

검정색 죄 등이 칠해진 그림이 벽을 둘러싼 것이 꼭 띠 같았다, 그 그림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예수의 복음이 이 장소를 저렇게 꽁꽁 둘러 싸매기를, 이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장소가 라마나웃이 되어서 별 디디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다. (이침 136 명, 한방 108 명, 치과 49 명, 계 323 명,



(네일아트 약 60 명)

강상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엄마 따라온 갓난아이까지 천막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목사님께 집중하고 있었다. 사는 길,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님을 목사님은 전하기 시작하셨다.

가난한 나라, 남자들은 뒷짐지고 걷는 나라. 세계에 국가가 백 몇 개 밖에 안됐을 때 부유한 순으로 등수를 매기면 백 몇등 이던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잘사는 순으로 9 등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복음이 있었다. 몽골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로워질 수 있다. 한국에 복음을 처음 가져온 선교사는 복음 한자 못 전해보고 대동강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 그 분이 죽어가며 전한 성경이 손에 손을 거쳐 누군가의 벽에 도배지가 되었다. 훗날 그 도배지에 붙어있는 요한복은 말씀을 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구나_ 부모가 나를 버리고

형제는 나를 때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열정적인 황선교사님의 목소리로 번역되어 선포되었다.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복음을 열심히도 듣는다. 시간이 가고 날이 추워지는데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거의 없다. 어제도 오늘도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게르에 우리팀을 초대한 할아버지와 가족이 와서 함께 예배드렸다.

그 사이에 치과팀은 아이들에게 불소약을 발라주고, 모두가 손에 손을 잡았다. 동그랗게 원을 만들었다. “그대로 멈춰라” 놀이를 하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예수님을 믿고싶은 사람을 손을 모으라고, 목사님께서 콜링하셨다. 그 자리에 앉은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모았다. 눈을 감았다. 기도를 따라 했다.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예수를 주라고 믿겠다고 예수 믿어서 잘됐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다.



8 시가 넘어서야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났다. 아이들 100 여명, 어른들 150 여명, 스텝 50 여명이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불렀다.

우리 스텝들이 문까지 통로를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길로 사람들이 나갔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가며 블레싱을

받았다. 금메달을 따고 개선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들은 충만한 얼굴이었다. 모든 스텝이 “바이르테(잘가요 안녕)”를 외쳤다. 몇 분이고 몇 번이고 박수치며 함께 웃었다. 사람들은 우리 손을 잡고 떠나고 싶지 않아 했다.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식상한 표현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다.

5월 4일 화요일

사막을 달렸다. 실은 사막이 아니라 초원이라고 한다. 여름이 되면 새파래지는 초원. 그러나 지금은 그저 사막이다. 푸름이라고 찾기 어려운 사막. 3 시간 30 분 동안 덜컹거리며 이동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양치는 다윗을 보았다. 하얗고 고불거리는 털, 고집 센 얼굴을 한 양떼와 목자를 보았다. 가도 가도 사람이나 집은 보이지 않는 초원에서 외로웠을 다윗, 오로지 하나님만을 만났던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에 작은 호수를 발견했다. 이것이 진정 술 만한 물가구나! 싶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생명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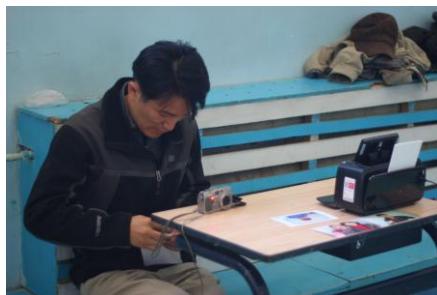
몽골 사람들에게는 “우글찌”라는 곳이 있다고 한다. 낮 동안, 풀이 있는 계절 동안 양과 가축을 풀어놓고 키우다가 겨울이 되고 밤이오면 모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넣어놓는 일종의 우리이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피난처”를 몽골에서는 이 “우글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고 한다. 추위, 바람, 위험, 어둠, 그리고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함께 있도록, 따뜻하도록, 먹는 것 걱정 없도록 보호하는 우리.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의 의미임을 깨달았다.

버스는 심하게 덜컹거렸다. 70년대에 포장한 도로는 날씨 때문인지 아스팔트가 다 떨어져 나가서 매우 유통불통했으며 곳곳에 웅덩이가 파여 있었다. 소음이 굉장히 높았고 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간증을 나누었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 우리는 마지막 사역지인 다르항에 도착했다.

몽골 제 2 의 도시인 다르항은 꽤 크고 잘사는 도시라고 하는데 울란과는 비교도 안되게 가난하고, 횡령그렁했다. 학교 일층의 체육관과 이층의 교실 하나를 우리가 쓸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오전 11 시가 다 되어갔다. 바로 각 팀은 세팅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다. 체육관을 꽉 채우고 복도를 꽉 채워서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한방팀은 책상을 붙여 만든 간이침대에 사람들을 눕히고 침 치료를 했다. 침 한 두



번으로 나아지는 문제들이 아니어서 식사, 음료, 생활 패턴을 어떻게 바꾸면 건강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이침팀은 조명이 좋지 않아서 핸드폰 빛데리로 연결하는 작은 스탠드를 사용하고, 치과팀도 환자를 의사선생님 무릎에 눕히고 진료해야 할 만큼 환경은 열악했지만 모든 팀이 식사시간도 줄여가며 자신의 몸이 더욱 수고하며 사역에 집중하였다.

하루가 어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역을 제시간에 접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라에서 감시하러 온 사람이 예배하지 말라며 기세 등등하게 나선 것이다. 행사는 해도 좋은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니!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 하러 온 것인가?! 그러나 어느새 담당자의 마음은 변해있었고 6 시 25 분 경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될 수 있었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 서열 3 위에 있는 당 서기장이 나와서 한국인들이 이곳에 오게 되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하였다.(이침 120 명, 한방 116 명, 치과 32 명, 계 268 명, 네일아트 약 50 명)



강단에 서신 강상준목사님은 이전의 어떤 날보다 담대하고 신이 난 표정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성경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셨다고 쓰여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였다. 우리 한사람 한 사람을 세상을 만들만큼 사랑하신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사용하며 살아라. 매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때문에 힘들고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권세를 당신에게도 주셨다. 예수님이 믿으면 이 권세를 회복하게 된다. 예수님 믿자. 이 권세를 회복하고 살자. 그 권세를 사용하고 살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고 목사님은 콜링 하셨다. 그 곳에 앉아있던 150 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 50 명 정도가 손을 모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원래 강상준 목사님은 환영사 정도만 하러 강단에 올라 가신 것 이란다. 그런데 성령님의 벅찬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콜링까지 하게 되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어 선물 하실 만큼 이들을, 우리를 사랑하심이 먹먹하게 전해져서 눈물이 났다. 조금 힘들다고 생각한게 부끄러웠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어서 황필남선교사님의 힘찬 선포가 계속 되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금 부르십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구원받으십시오. 우글쩌(피난처)되신 예수님께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피난처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 분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 지옥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2 천 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심히 아플텐데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6 시간이나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찔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너무 좋은 자리에 왔습니다. 지옥은 너무 뜨겁고, 무섭고, 끔찍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분이 이미 다 지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마에도 불교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1992년 아내와 함께 몽골에 왔습니다. 실은 처음에는 몽골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몽골인들이 죽어간다. 그들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은 진짜 너무 원하십니다. 몽골사람들이 천국에 오기를 소원하십니다. 진실로 원하십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감았다.

새빨간 복음. 수많은 이방신을 평생 모셔온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 이름도 생소한 지구 반대편의 피부색도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고, 처음 듣는 신이 이유도 없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피 흘리고 찔려 죽게 하였다는 그 새빨간 보혈의 이야기.

처음 듣는 그들에게는 강하고 거북 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순수한 복음을 선교사님은 담대하게 전하셨다. 이 지역에는 교회가 없다. 몇몇 기독교인이 있지만 모일 장소도 없고 인원도 없다. 영적으로 어둡고 적진의 한 복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곳, 다르항에 보혈의 깃발이 꾹혔다.



벌써 저녁 8시가 되어지는데 해는 여전히 느릿느릿 노을을 만들고 있다. 2시간이 넘고, 덥고, 배가 고풀 텐데 여전히 2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이곳에 앉아있다.

사역을 하면서 서로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며 욕심이라고 생각했다. 양보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순수한 열정이었음을 깨닫는다. 어린 아이들은 양보도 질서도 잘 모른다. 그저 나를 안아달라고, 그저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한다. 똑같다. 이들도 똑같다. 그 똑같은 열정으로 이제 나를 살려달라고 그 복음 앞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예배 시작 전에 환영사를 전한 서열 3 위의 당서기관이 마지막까지 남아계셨다. 그 분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이제까지 교회를 몇 번은 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



우리는 그 분을 안고 축복했다. 그리고 그 분이 이곳에 세워질 아가페 교회의 리더쉽이 되도록,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기도했다.

캄캄해져 조명도 없는 마당에서 우리 월드와이드 몽골 아웃리치 팀 전원과 아가페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지난 몇 일간 우리를 도와주었던 모든 통역 청년들이 손에 손을 잡았다. 이 땅, 공산당의 감시 하에 있어 눌려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했다. 아가페교회가 예배할 처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오직 주님께 헌신된 리더쉽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짧은 날 수였다. 하지만 벌써 몇 달은 함께 한 것 같은 통역 청년들과, 이제 안녕이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인사를 나눴다.

사막의 밤은 아름다웠다. 사람도 집도 조명도 하나 없는 사막의 길은, 땅이 조금 그리고 하늘이 전부 였다. 플라네타늄 같은 하늘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실재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만큼, 하늘에는 별이 많았다. 한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별. 저 별들이 저렇게 무수히, 분명 같은 하늘에 떠 있었을 테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한국에서도 똑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테다.

우리는 너무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곤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좋은 공동체에서 은혜의 말씀을 매 주 들으며 양질의 양육을 받으며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종종 잊는다. 불평할 것들을 세어보고, 내 옆에 누군가와 비교하며 내 삶이 어둡다고 한탄한다. 정말, 정말 그런가? 이곳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저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들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춥게 살아간다. 이 좋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도 모른 채 고아와 같이 살아간다.

우리 삶에는 이미 많은 은혜들이 배치되어 있다. 주어져 있다. 주변이 너무 밝아서 때로는 그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 었음을 하염없이 이어지는 별 천지의 하늘에서 배웠다.

5 월 5 일 수요일

어제 강단에 올라가신 목사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콜링하고 내려오셨다. 그러나 그 때 목사님께는 좀 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황필남 선교사님께 함께 하셨다. 황 선교사님은 피 묻은 복음을 전하셨다. 이 설교가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불러 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설교를 너무 잘 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목사님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강상준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울란바토르의 명물인 자이승 전망대로 향했다. 울란바토르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위치에서 아파트만한 금 불상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상이 무너지고 저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전망대에 올랐다.

자이승 전망대에 오르자 탁 트인 시야로 울란 전체가 다 보였다. 우리가 지난 5 일간, 아니 그 전부터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고 밟은 이 땅.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둡고 턱한 이 땅.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히기를 기도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도 임하기를 찬양 했다.

마지막 시간 까지 몽골 땅을 밟으며 기도한 우리는 1 시, 비행기 시간이 다되어서야 공항으로 달려갔다. 배웅 나온 황선교사님의 가족들과 해어지기가,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땅과 해어지기가 아쉬워서 창가에 모여들어 몇 번이고 몸으로 하트를 만들고, 인사를 나누었다. 옷이란 옷은 다 벗어주어 한 걸 가벼워진 가방과 마음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 월드와이드 교회가 <쇼보릭 파보릭교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기뻤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 타이밍이 우리가 원하는 때이든 아니든, 분명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가장 좋은 수로 일하신다.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겨라.” 우리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몽골뿐 아니라 아웃리치 때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월드와이드 몽골 아웃리치팀이 되기를 소망한다.

탐방기 – 디아스포라 신학교

본회 후원 기관인 디아스포라 신학교(학장 김영제 목사)를 방문하여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신학교는 선교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중앙아시아 국가 및 러시아 등 러시아권 국가를 위해 준비된 귀한 기관입니다. 더욱 힘있게 쓰임 받기 위해 더 많은 후원의 손길과 기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취재 : 정진호, 최혜원 /사진 : 최길상)

2010년 6월 22일 저녁 9시, 다소 늦은 시각에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선교중앙교회(담임목사:김영제)에 취재차 방문하였다.

바로 이 선교중앙교회 내에 본회 후원 기관인 디아스포라신학교와 기숙사가

있기 때문이다.

선교중앙교회는 교회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선교에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이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이 날도, 총회 (예장 고려) 선교 대회차 방문한 선교사 및 가족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선교사로서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누구보다도 선교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김영제 목사님이기에 이러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이곳 저곳을 소개해 주셨다. 지하에 위치한 본당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당 같았다. 세계 선교를 위해 드려진 교회, 특별히 중앙아시아와 러시아권을 위하여



현신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본당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디아스포라 선교신학교의 역사는 전 우즈벡 선교사였던 김영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선교 중앙 교회의 김영제 목사님은 1994년 구 소련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 받아 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해 한국으로 돌아 오게 되었다. 교단 선교부에서는 다시 모스크바로 파송하려 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차에 현재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선교중앙교회 (당시, 예일교회)의 청빙을 받아 한국에서 목회하게 되었다.

그 때 목사님에게는 몇 가지 기도제목이 있었다고 한다.

첫째, 나 한 사람이 추방당했지만 열 명 이상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해달라는 것과 둘째, 구 소련권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 섬길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과 마지막 셋째는 선교사들을 양성하여 선교지로 파송하는 일이었다.

(김영제 목사) “선교 현장에서 깨달은 것은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이 상당히 모여도 잘못된 후임 사역자를 세우면 금방 교회가 쇠퇴하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 한 사람이 몇 개의 교회를 감당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선교사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제일 원리는 현지인을 지도자로 세워 자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자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매우 힘주어 말씀하셨다.

현재, 특히 중아시아 이슬람권은 외국 선교사들을 추방하며 펫박이 심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러시아권은 러시아어가 어렵기 때문에 구 소련 선교가 시작된지 20년이 되었지만 러시아어로 설교할 수 있는 선교사가 거의 없다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지인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김영제 목사님은 한국 목회와 더불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구 소련권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사역자로 훈련 시켜 파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김영제 목사)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교회 주변에 구 소련 (독립 국가연합) 지역 사람들의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만나고 도우면서 낮에 일하는 그들에게 밤마다 말씀을 가르칠

필요를 느끼면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 6일 김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선교중앙 교회가 중심이 되어 두 분의 사역자와 선교사 시절부터 목사님과 알고 지내던 가까운 목사님들의 협력과 도움을 힘입어 디아스포라 선교회와 신학교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김영제 목사님이 디아스포라 선교회 회장과 신학교학장을 맡고 선교 중앙교회 교육관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교중앙교회와 당시 몇몇 이사 목사님들 교회가 협력하여 외국인교회와 신학교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 학생 관리와 임대료의 어려움으로 선교중앙교회당 안으로 다시 들어 오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선교중앙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지게 되는 축복을 받아서 교회당 5층에 기숙사를 만들어 합숙하고 3층 세미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학교연혁과 구성에 대해>

현재 학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래 머물기 어려운 점과 긴 방학이 필요치 않은 점을 가만하여 2년 6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들에게는 차후에 추가 교육이 있다고 한다. 교수진은 선교사 출신 목회자들과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선교적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과 국내 신학교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갈등도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서 십 여명의 정규 신학생과 몇몇의 청강생이 매일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강의를 통해 공부하고 있다. 또한 몇몇 졸업생들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사님들을 도와 신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졸업생 중 신실한 학생들은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을 끝까지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목사 안수와 선교사 파송 문제 등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장 고려 교단에서 선교지에 세운 신학교 분교처럼 인정하여 졸업 문제와 안수 문제 등을 해결해주기로 한 점이라고 한다.

이날 우리 일행이 방문했을 때는 이스라엘 선교사께서 강의를 진행 중 이셨으며, 현재 한국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러시아 학생이 통역으로 수고하고 있었다. 강의의 분위기는 본회 홈페이지 (www.cyworld.com/universalcare)에서 살짝 엿볼 수 있다.

현재 디아스포라선교회(신학교)가 하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신학교운영 및 사역자 배출
2. 사역자 파송 및 후원
3. 현지 한국 선교사님들과 연결하여 지속적 교육 및 관리
4. 선교사님들 접대 및 위로
(특히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5. 구 소련 각 지역 선교사님들의 강의와 특강 등에 초청하여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사역함
6.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의 인재들을 통역자로 활용하고 후원하며 함께 협력
7. 한국에 있는 구 소련권 교회나 모임을 후원하며 때로 함께 연합 사역을 하기도 함

8. 한국에 있는 구 소련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모임)를 도움-- 중앙아시아 키르키즈인들 모임이 시작됨
9. 구 소련 지역과 중국 등의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수진을 교류하고 파송하는 일
10. 관계된 선교사님들과 어려움 당한 외국인 지원
11. 신학교가 없는 선교지의 학생이나 필박이 심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신학생들을 받아 교육하여 파송하는 일 등이다.

그리고, 신학교내에 이슬람에서 개종한 몇 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며 전도함으로 그들 민족들의 모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중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디아스포라 신학교는 재정적으로 교수님들 교회 한 두 곳과 두 세분의 김영제 목사님 동문 목사님들 교회, 그리고, Universal Care에서 약간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선교중앙 교회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강의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밤 10 시가 다 되어서야 강의가 끝이 났다. 학생들 모두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왜 고국에서 머나먼 이 땅 대한민국에 와 있을까?

디아스포라 신학교의 비전

1. 신학교를 통하여 많은 현지인 사역자(목회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여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돋는 사역을 감당케 한다.
2.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모임(교회)을 만들거나 지원하며 그들 중에서 사역자를 발굴하여 훈련하고 파송한다.
3. 외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구 소련권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 및 다른 나라와 민족으로 확장해 간다.
4. 한국의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 또 온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와 협력하여 디아스포라들을 선교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을 확대해 간다.
5. 100 명의 현지인 사역자 및 선교사 파송과 후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이 신학교에 졸린
눈을 비벼가며 책상 한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

도저히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되어질
일은 아니다.

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성령님께서 이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젠가 이 신학교를 통하여 배출된 주의
사자들과 중앙 아시아와 러시아 땅을

밟으며 동역하게 될 Universal Care
선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주님, 복음의 서풍이 이들로 하여금 더
힘있게 불게 하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슬람의 진이 중앙아시아 땅에서
무너지게 하소서. "

선교지에서 1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를 꿈꾸며..



김아영 사모

러시아 로스토프 나 도누 선교사

12년 전, 세살바기 어린 딸을 안고서 긴장과 흥분에 벅찬 감정을 누르며 우리 부부는 그렇게 고국을 떠났다.

우리의 첫 사역지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끄줄오르다.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된 우리 동포들이 '고려인'(까레이츠)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해 사는 곳이었고, 거기엔 선교사가 떠난 후 긴 공백기간으로 기다림에 지친 몇 명의 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낡은 교회가 있었다.

"그래.. 좋은 선교사요 사모가 되어보리라. 많이 사랑해주리라..." 내 초심은 그랬다.

중학교 2학년 철없던 시절에,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선교사가 되기를 서원하고, 그 꿈을 안고 신학교까지 다녔지만, 실상 비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나 자세는 마냥 미약했던 나였다. 신학교에서 만난 남편 역시 "선교"에 대한 소명은 확신하지 못했던 차였다.

채 갖춰지지 못한 자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친히 불어넣으셨던 열정, 곧 마땅히 선교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으로 미련없이 달려가게 하셨던 것이다.

사역 현장에서 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크고 작은 고난의 산을 넘었고, 기쁨과 아픔이 교차하는 시간들을 겪었다.

낯선 모슬렘 문화권이 주는 이질감이나 종교적 편파, 어린 자녀들이 겪는 외로움, 재정적 궁핍 같은 것들은 어쩌면 모든 선교사들이 밟는 기본 과정일 것이다.

정성들여 양육해온 제자들이 가차없이 신뢰를 저버릴 때, 또는 우리가 그들을 더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시행착오.. 이 역시 힘겨운 훈련 코스였다.

선교지로 나온 지 4년 만에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인 친정 어머니를 하늘로 데려가셨을 때, 그리고 슬픔에 빠진 가족을

남겨둔 채 선교지로 냉정히 돌아서야 했을 때의 아픔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물론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의 열매도 적지않다. 또 다른 두 곳에 교회가 개척되고,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교회가 든실해지는 축복을 주셨고, 낙후된 의료 환경 가운데에서도 순조롭게 둘째아이를 출산케 해주셨다.

크든 작든 그 어떤 사건일지라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은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안다.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셨고 가르쳐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의 사모로서 또는 사명받은 자로서 가장 힘겹게 느껴지는 벽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무언가가 되어주리라, 사랑해 주리라던 생각은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던가... 아직도 전혀 낫아지지 못했고 섬기지 못하는, 아니 그럴 능력이 없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나의 섬김과 봉사는 내 시간, 내 건강, 내 자녀에 대한 이기적인 담벼락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파인애플 만큼은 현지 인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던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그 사랑이란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뼛속까지 새겨지고, 그 보혈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를 때만 가능한 것임을 알았다.

선교사와 사모의 직분 이전에 내게 필요한 이름은 삶 속에 십자가 사랑이 흐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다.

이제 주님은 우리로 카작 땅을 떠나 러시아로 옮겨 새로운 성격의 사역을 맡겨주셨다.

러시아 현지 목회자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을 올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재교육하는 신학교 사역과 교회개척 사역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목이 곧은' 러시아인들과 그들의 고자세를 답습하며 살아가는 고려인들의 마음을 얻는 길은 '낫아짐과 섬김'임을 우리 부부는 이제 안다.

로스톱에서 개척한 우리 교회엔 열명 남짓한 교인들이 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신생아와도 같은 그들에겐, 밤잠 안자고 수유하며 기저귀 갈아주는, 그럼에도 결코 불평할 줄 모르는 헌신적인 어머니만 필요할 뿐이다.

감사에 인색하고, 불편함을 못 견디며, 세속적 가치관에 더하여 이방종교의 습성까지 남아있는 그들로 인해 속상해 질 때마다 내 첫 사역지의 교훈을 떠올린다.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그리고 기도한다. "주님, 뽀빠이처럼 시금치 좀 날라 주세요. 먹으면 불끈불끈 사랑이 솟는 예수님표 시금치요..."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내 모습은 미숙하기만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교훈으로 인하여 나는 좀 더 자유로워졌다.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가 되어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음을, 오직 주님을 더욱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면 될 뿐임을...

선교대회 차 고국에 머무는 요즘, 순간순간
울음을 삼킬 때가 있다.

선교사가족에겐 무조건 공짜 치료를 해주느라
자기 고객을 별로 챙기지 않는 별난 치과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또 선교라면 모든 걸
울인하는 순 큰 선배 목사님의 따스한 환대를
받으며, 그리고 선교사의 가족이라서 늘
노심초사하면서도 또 참고 기다려주는 내

부모님과 동생의 인내를 보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목이 메인다.

이들도 주님이 날라주신 시금치를 먹고
있음에 틀림없다.
주님께 조용히 고백해본다.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주님 사랑
하렵니다...!”

선교지에서 II

남아공에서..

배성호선교사

지난 해 11월 ~ 12월 사이에 한국 잠시 방문하였을 때 이용균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파주전원교회에 숙소를 정했다.

그곳에서 남아공과 짐바브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정인영 목사님을 만났고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외출 후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오면 서로에 대한 사역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때 들었던 짐바브웨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도 남음이 있었다.

약 한 달을 머무는 동안에 기도하며 짐바브웨로 가고자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했고 남아공으로 귀국 후 함께 짐바브웨로 함께 정찰을 가기로 하였다.

12월 16일에 남아공으로 귀국한 후 짐바브웨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접촉 할 선교사님이나 현지인 또는 교민들을 조사 해 보았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2월 포트엘리자베스에서 요하네스버그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하였다.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었고 그곳에 대한 기도를 놓치 않았다.

시간이 되어 공항으로 가는 도중 편도 1차선 도로 위에 차량이 불에 휩싸여 있었다. 늘어선 차량들은 움직임이 없었고 촉박해 오는 시간에 마음을 줄이고 있을 때 멀리 경찰차가 윈쪽 바퀴는 인도에 올리고 오른쪽 바퀴를 차선

에 걸치고 비스듬이 가는 것을 보고 나도 그대로 가기 시작하였다.

간신히 빠져 나와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비행기의 탑승문은 닫히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8년여를 살면서 국내선에 꽤 많이 탑승해 보았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한참을 멍하니 서서 온갖 생각에 걸음을 뗄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 낮에 그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짐바브웨에 다녀 와서 3월에 다시 가신다고 하니 3월 중에 다시 기회를 내서 함께 가기로 하였다.

3월이 되고 선교사님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3월 5일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

궁금하여 다시 전화를 드리니 짐바브웨에 가셔서 약 한달간 고생을 너무 하셨는지 건강을 해쳤고 당뇨가 심해지셔서 쉬셔야 한다는 것 이었다.

가슴 출이며 기다렸던 시간들.....

짐바브웨로 가고자 했던 간절한 열망이 아직도 식지 않았는데.....

그곳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고 힘을 낼 수가 없다. 하루 하루의 시간이 너무 길기만 하다.

간신히 정신을 차려 일상의 생활로 돌아 오기
까지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이었다.

차량 화재 그리고 선교사님의 지병.....

최종적으로 현재는 짐바브웨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 드렸던 그날은 3월 중순 월요일
이었다.

마음에 평온을 찾고 있었을 때 전 날 주일 저
녁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함께 은혜를 나눈 말
씀이 새삼스레 마음에 와 닿는다.

롬 15:16~27

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
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
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
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17: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 :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
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
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
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9 :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0 :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 :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2 :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려번 막혔더니

23 :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
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
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24 :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
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25 :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 :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
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
마를 동정하였음이라

27 :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
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새로운 깨달음
을 주시고 그 말씀에 깊이를 더욱 깨닫게 하
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택시를 타고 다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택시를 타고 몸을 맡기는 그 시간에 내게 주
신 은혜는 지나 온 8년간의 은혜 보다 넘치고
도 넘친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서 이들에 대한 사랑이 피어나고, 그 속에서
듣는 이들의 삶에 애환 속에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이들의 음악을 들으며 이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간절한 소원을 알게 되고
이들을 향한 끝 없는 기도가 나의 가슴 속 깊
은 곳에서 터져 나온다는 사실 앞에...

나의 남은 생애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 세우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선교를 시작 할 수 있
다는 사실 앞에 넘치는 감사를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택시 안에서 받은 비전.....

그 동안 가슴 속에 묻혀 있던 꿈들을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감동으로 전문인 선교사 양성이라는 계획을 세우게 하셨던 택시 안에서의 은혜 앞에 어떻게 불평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그 환경은 변함이 없건만 그 이전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날 살리시고 볼드셔서 쓰시겠다는 것이 그냥 믿어진다는 사실과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데로, 강물이 흘러 가는 데로 나의 인생을 맡기고 가다 보면 어느 날 바다를 만나 끝 없는 날개를 펼 수 있으리라.

택시 안에서 받은 은혜가 함축 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전문학교 창학정신에 대한 함축 된 의미를 성령께서는 로고에 담게 하셨다.

어느 누가 보아도 느끼고 감동 할 수 있는 창학의 이념이 로고에 담겨져 있어 목표, 방향 그리고 목적이 장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는 모든 계획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완성을 보려면 7월 한 달 숨가쁘게 돌아가야 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나는 이런 지혜자를 갖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려 한다.

남아공에서 배성호 선교사 배상



Means

Cross_†
Christian college
inter change_communication

십자가의 네 귀퉁이는
‘4T’로 학교 창학정신 즉,
학교가 궁극적으로 키워내려고 하는 인재
를 나타냅니다.

4T

T echnically
T rained
T rue Person
T 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문적으로 훈련된
진실된 사람

선교사 기도제목

러시아 김우섭선교사



1. 교회의 부흥과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2.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신실한 제자들이 배출되도록
3.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4. 가족들을 위해서

몽골 황필남선교사

www.pnhwang.com



1. 월드와이드 교회가 세운 쇼브릭 파브링스 교회가 빨리 안정을 찾고 성장 할 수 있도록
2. 쇼브릭 파브링스 교회 건물 매입과정에서 부족한 서류들이 잘 정리되어 져서 순속하게 건물 매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3. 여름에 돈드고비에 개척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4. 여름에 올 단기팀들의 안전한 사역과 열매 있는 사역을 위해서
5. 황필남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적 한계와 탈진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성호선교사

www.josephbae.com



1. 성령의 지혜를 품은 일꾼들을 일으키소서
2. 이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 날 선교사 후보생들을 일으키소서
3. 학교의 설립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돋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인가가 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소서

4. 필요한 모든 재정을 남아공 정부, 선교단체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후원자들을 일으키소서
5. 기술 전문학교를 위하여 손과 발로 쓰여질 차량을 준비해 주소서
6. 구체적인 계획서가 속히 완성되게 하소서
7. 학교 설립을 위한 서류가 속히 완성되게 하소서
8. 남아공 내에서 후원 개발자를 보내 주소서



1. 사역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도록
2. 언어의 진보를 위해서
3. 프놈펜 지역의 빈민촌 학교 사역의 계획을 위해
4. 예배사역을 위해

||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1. 공석증인 이사장직에 예비하신 좋은 분 허락해 주옵소서.
2.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후원교회와 이사진을 주옵소서
3. 좋은 학생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교수진이 든든하게 하옵소서.
4. 학생들의 건강과 직장, 재정문제, 두고 온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5. 졸업한 학생들을 후원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6. 협력교회인 샬롬교회를 신학교 옆으로 이사시켜 매일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7. 교수님들과 후원교회, 기관들을 위하여

Universal Care 소식 및 기도제목

1. Universal Care 2010 여름호 출간

2010년도 두 번 째 "Universal Care" 선교회지 여름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 동역자에게 전하실 목적으로 회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집부로 연락 바랍니다.

2. 몽골 장로회 연합 신학교 신학생 장학금 계좌 변경

신한 110-302-594082 예금주 : 최혜원

3. 2010 몽골 아웃리치

|| 캄보디아 송찬송 선교사

2010년 5월 1~5일 4박 5일간 몽골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Universal Care 진료팀뿐 아니라 월드 와이드
교회 몽골 선교회와 함께 선교지 교회개척을
목표로 진행되어, 몽골 울란바토르 쇼브링
파브릭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 정진호, 신보균, 최길상, 천윤미, 이은숙

4. Universal Care 제 5 차 정기모임

마라나타

강사 : 황필남 선교사
몽골인 선교사
본회 상임고문

일시 : 2010년 7월 6일(화) 오후 7시 30분

5. 선교사동정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님과 몽골 황필남
선교사 가족 일시귀국

총회 선교대회 참석차 가족과 함께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6. 2010 Universal Care Mission Conference

일시 : 2010년 9월 4일 (토) 오후 5시

장소 : 월드아이드교회 3층 요셉홀

강사

1부 : 우상두 장로

2부 : 박인용 목사

월드와이드교회 담임

본회 상임고문

주최 : Universal Care

후원 : 월드와이드교회 의료선교회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박말향, 신보균, 황영석, 최혜원

기도제목

-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를 돋는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 Universal Care 를 통하여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Network 가 형성되게 하소서.
- 2010년 사역 계획 위에 주의 기름부음을 주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제5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찬양인도 : 홍 성 훈

강 사 - 황필남 선교사

이스라엘 회복의 필요성

(롬 11: 25 ~ 28)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 122: 6)

후원선교사

황필남 선교사 (몽골) www.pnhwang.com

김우섭 선교사 (러시아)

배성호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www.josephbae.com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송찬송 선교사 (캄보디아)

Universal Care 장학금

: 몽골 장로교 연합신학교 에르덴 호익 전도사

Universal Care

www.cyworld.com/universalcare